

# 日本の 農村生活科學 研究

李漢基

農村營養改善研修院 生活指導官

“農村生活科學研究”와 “農村生活研究”는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는 概念이겠으나 일본에서는 “農村生活科學研究”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주로 “農村生活研究”라는 용어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農村生活研究”를 그대로 사용하고자 한다.

日本에서의 農村生活研究는 1945년 제2차 世界大戰을 前後하여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최초로 農村生活研究를 시작한 것은 1945년 종전직전 農事試驗場 三本木原營農支場의 調查研究部였으며 뒤이어 1946년에는 開拓研究所 生活部에서도 農村生活研究를 시작하였다. 1950년대 이후부터는 이들 先發 연구기관외에도 여러 연구기관과 관련단체에서 農村生活研究를 수행해오고 있다.

本論에서 살펴볼 내용과 순서는 먼저 I 장에서 이들 相關 연구기관과 단체의 狀況을 살펴보고, II 장에서는 時代區分에 따른 農촌생활과학연구의 흐름을 概觀해 보고, III 장에서는 분야별 상황 및 研究動向을, 끝으로 IV 장에서는 今後的 과제를 제시해 보고자 한다.

## I. 農村生活研究 機關 및 關聯 團體

農村生活研究 相關 기관 및 단체와 담당 연구실을 보면 우선 農림수산성 산하 국립연구기관으로 農業研究센타의 농업계획부 農촌생활연구실, 東北農業試驗場의 농업경영부 농가생활연구실, 中國農業試驗場의 농업경영부 경영 제5연구실, 農業總合研究所의 농업구조부 지역연구실 및 農촌사회연구실이 있으며, 이외에 都·道·府·縣(宮城縣, 山形縣, 山口縣, 高知縣)의 農業試驗場, 農業環境技術研究所, 食品總合研究所, 生活改善研修館에서도 부분적으로 農촌생활연구를 하고 있다.

농업연구센타의 경우는 1946년 그 前身인 開拓

研究所 生活部에서 최초로 農촌생활연구를 시작하였으며, 東北農業試驗場의 경우는 終戰直前 1945년에 그 前身인 農事試驗場 三本木原營農支場 調查研究部에서, 1950년에 발족된 中國農業試驗場의 경우는 1956년에 최초로 農촌생활연구를 시작하였다.

生活改善研修館의 경우는 생활개선보급직원의 연수외에 피복·음식·주거·가정관리 등의 기술에 關한 실험연구를 아울러 실시하고 있다. 또한 社團法人體로는 農림수산성 산하의 農村生活總合研究센타, 農촌생활연구회와 農山漁家生活改善研究會가 있다.

農촌생활총합연구센타의 경우는 1975년에 발족하여 농업자, 농가, 農촌지역 사회·경제·자연과의 關係에서 발생하는 諸問題에 關해서 그 구조와 요인을 究명하는 學際的 研究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1957년에 발족된 農村生活研究會는 農村生活研究發表會 開催와 季刊誌인 『農村生活研究』를, 같은 해에 발족된 農山漁家生活改善研究會는 農村生活改善에 關한 調查研究, 『生活研究』誌 發刊 및 技術普及으로 生活改善事業을 支援하고 있다.

한편 農림수산성 산하이외의 相關기관으로는 厚生省 傘下의 國立營養研究所, 1970년 특수법인으로 設립된 經濟企劃廳 傘下의 國民生活센타 調査연구부, 1952년 재단법인으로 設립된 勞動科學研究所 노동생리 및 심리연구부, 노동위생연구부, 1964년 厚生省 傘下의 재단법인으로 발족된 日本農村醫學研究所, 日本女子大學附屬 農家生活研究所(1952년 設립)등이 있다.

국민생활센타 調査연구부에서는 주거, 지역사회, 食品 등 국민생활에 關련된 문제의 調査연구와 『國民生活研究』誌를 發간하고 있으며, 노동과학연구소에서는 農作業 環境條件 측정·평가, 農민의 노동조건 및 생활상태 분석등 노동과학적 研究를 하고 있다. 日本農촌의학연구소에서는 農藥中毒,

人畜共同傳染病, 농업노동의 노동생리학적 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다.

## II. 分野別 研究動向

### 1. 衣生活 分野

농업종사자의 의생활가운데서 큰 역할을 하는 것은 농작업복이다. 戰後 농가의 의생활은 급속히 洋服化하는 경향이 나타났는데 이에 따라 농작업복도 양복화하였다. 그후 농업기술의 발전에 따라 새로운 노동수단을 農作業에 도입하게 되었으며 이에 대응하여 機能性を 살린 농작업복 개발에 노력하였다. 이를 위한 기초적 연구로 각 지역의 농작업복 및 의생활실태조사와 아울러 농촌부인의 體位測定과 농작업동작에 따른 신체 각 부위의 변화를 조사하여 농작업복이 갖추어야 할 기능조건을 밝혔다. 농업이 기계화되고 農業經營이 다양화됨에 따라 농작업도 질적으로 변화되었으며 이에 따라 각종 外的環境條件으로 부터 신체를 보호하면서도 작업하기 쉽고 쾌적하며 아름다움까지 겸한 농작업복 개발에 노력하고 있다.

이외에도 美的 요소를 加味한 利用度 높은 평상복의 개발, 현대화추세에 따른 예복의 간소화, 위생면과 경제적인 면은 물론 人間工學 및 첨단소재를 이용한 寢具類의 개발, 의복관리분야에서는 의생활의 다양화에 따른 의복의 선택 및 착용, 손질과 보관방법, 낡은 옷 처리방법 등이 주요한 연구과제로 되고 있다.

### 2. 食生活 및 營養 分野

식생활연구는 국민전체가 영양결핍상태에 있었던 40~50년대에는 농촌의 식생활실태 및 食生活構造의 분석과 영양섭취증대를 위한 農家食單開發 등 농가식생활개선연구가 중심이 되었으며 1960년대에 들어서 영양부족문제가 해결되면서 연구의 증점은 장류, 장아찌류 등 자가조정식품의 營養化學의 연구로 옮겨졌다. 1970년대에 들어서는 영양과잉섭취와 비타민등 미량요소의 결핍이 공존하게 되어 均衡食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으며 1980년대부터는 일본형 식생활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었다.

최근에 와서는 식생활연구는 量的으로는 점차 축소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내용적으로는 쌀을 포함한 農產物 輸入開放, 건강육구의 증대, 지역특산 식품의 選好등에 따라 다양화 되고 있는 경향이다.

### 3. 住生活 分野

戰後 농촌생활개선에 있어서 주거의 문제는 食生活問題 못지않게 중요한 문제였다. 農家住宅 實態調査를 기초로 하여 부역, 변소개량에 대한 연구가 집중되었다. 특히 부역개량은 농촌생활개선사업의 대표적인 사업이 되기도 하였다. 그후 급속한 경제성장에 따라 농가주택이 一定水準으로 개선됨에 따라 농촌주생활연구는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다. 부역개량을 위한 動線研究로부터 家事勞動分析, 주거의 건축학적 연구 등으로 다양화되었으며 나아가 住居만이 아닌 農村生活環境 문제로 옮겨짐에 따라 농촌주생활에 대한 연구는 국가연구기관에서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 4. 農村生活環境 分野

生活環境에 관한 연구는 1950년 부터 시작되었는데 당시는 식량증산을 위해 宅地까지도 農耕地로 만들어 여기에 다량의 人糞尿를 거름으로 주게됨으로써 기생충에 의한 오염이 주요한 환경문제였다. 이에 따라 人糞尿中の 기생충알을 죽이거나 줄이는 연구가 실시되었다. 1960년대에 들어서는 화학비료와 소, 돼지등의 축산진흥에 따라 이들의 사육관리상의 결함으로부터 오는 파리, 모기, 쥐등의 발생으로 새로운 환경오염 문제를 若起시켜 이들의 驅除에 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다. 또한 1960년대 이래 簡易上水道의 보급과 세탁기의 보급, 목욕실의 개선 등으로 인한 家庭下水의 증가와 家畜飼育頭數의 증가에 따른 家畜舍 汚水에 의한 河川, 農業用水, 地下水 등의 환경오염 문제가 크게 야기됨에 따라 이에 대한 연구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그간의 몇몇 연구에 의하여 家畜舍 汚水의 처리법으로서 好氣性的의 생물화학적 처리법(活性汚泥處理法)이 개발 보급되기도 하였다. 특히 물에 대한 연구는 農業環境技術研究所의 수질관리과에서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있다.

## 5. 農村社會 分野

農村社會環境에 대해서는 인간적 조건의 解明에 중점을 두고 東北農業試驗場과 中國農業試驗場에서 중점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1960년대 후반부터는 농촌의 사회환경에 관한 이론적인 문제정리와 방법론에 관심이 기울여졌다. 1970년 이후부터는 농촌사회환경정비에 관한 연구가 개시되어 農業生産力을 발전시키는 한편으로 兼業化, 混住社會化, 人口의 過疎化, 그리고 高齡化가 진행되는 농촌사회에 있어서 매력있는 농촌생활을 만들기 위한 연구가 계속되고 있다. 여기에서 농가의 취업문제, 農民意識, 농업후계자문제, 농촌사회조직, 定住條件의 정비와 농촌계획, 고령자문제에 대한 연구가 주요하게 다루어져 왔다.

농촌의 고령화 또는 농가 고령자 문제가 연구의 한 분야로 일체히 등장하게 된 것은 1970년대 부터이다. 農村高齡者 문제에 대한 접근방법은 ① 사회문제의 일환으로서 보는 입장 ② 福祉的 측면에서 보는 입장 ③ 農業生産과의 관계에서 보는 입장 등으로 구분되고 있다.

## 6. 健康, 保健分野

戰後 食糧증산기로부터 農業機械化가 되기까지의 기간에는 주로 육체적인 疲勞와 疾病과의 관련성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졌다. 고도경제성장기 이후부터는 농가의 겸업화가 進展됨에 따라 증가된 농촌부인들의 勞動負擔, 농업생산기술의 고도화에 따라 도입된 농약에 의한 障害, 農機械導入에 따른 작업사고, 施設園藝에 의한 하우스병 등에 관한 실태분석과 개선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농가의 農業勞動과 건강에 관련해서는 근년에 농촌생활종합연구센터에 의하여 종합연구의 일환으로 다수의 實態調査 및 대책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 7. 家庭管理 分野

가정관리 분야의 연구로는 농가의 家計構造와 기타 변동요인에 관한 연구, 가정관리의 합리적 개선과 계획적인 運用에 관한 家計診斷方法의 개발, 最低生活費에 관한 研究와 이외에 합리적인 生活時間 配分, 役割分擔, 主婦의 家庭管理能力, 주부노

동의 類型化 등에 대해서도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또한 農家の 生活이 급속히 都市化 近代化되어 가는 과정에 있어서 그 가정운영상의 變化와 그 要因 및 問題의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가 중요시되고 있다. 생활시간분석의 영역에 있어서 주요한 課題는 장시간의 농업노동이 家事나 餘暇를 압박하고 있는 狀況으로부터의 解放이다.

## 8. 家族關係 分野

家族關係研究는 이때까지 가족관계학을 시작으로, 사회학, 민족학, 가정학, 文化人類學등이 채택되고 있지만 農家の 家族關係를 주로 채택해온 것은 농촌사회학의 제연구이다. 그러나 그 研究目的은 주로 가족관행의 해명이었고, 농업경영전개와 관련된 家族關係의 구명은 주로 農業關係研究機關의 연구로 採擇되어 왔다. 이때까지의 가족관계연구 動向을 社會經濟的인 情況變化와 關聯시켜 보면 다음과 같다. ① 1960년대까지의 연구는 전후 민주화의 過程속에서 農家の 가족관계를 前近代의인 것으로 보고, 그 實態解明과 근대화의 가능성을 밝혀보려는 것이었다. 그 후 ② 1960년대에 들어서부터는 經濟의 고도성장에 따라 農業勞動力의 유출이 深化되어 농업후계자의 확보 때문에 가족관계 근대화를 목표로 하는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다. ③ 1970년대 이후는 가족관계의 近代化가 더욱 더 進展되어 傳統의인 家系와의 矛盾이 더욱 확대되고, 直系家族을 유지하고 농가로서 존속하기 위하여 새로운 가족관계의 形態를 구명하려고 하는 연구가 증가되고 있다.

## III. 農村生活研究의 時代區分

### 1. 田口三樹夫·工藤清光에 의한 구분

#### 1) 제1기(1945~1960)

제1기는 1945년부터 1960년까지 즉 종전직후부터 高度經濟成長期까지의 소위 農村民主化·經營合理化의 시기이다. 이 시기의 農村生活研究는 生活技術의 近代化 및 貧困으로부터의 해방을 추구한 生活實態 解明에 관한 研究의 時期로 食生活, 住居, 衣服, 衛生의 實驗研究, 婦人勞動, 가계비, 生活習慣,

通婚圈등의 調査研究가 중심이었으며, 이 時期는 各縣 農事試驗場에 있어서도 어느 程度의 生活研究가 이루어졌다. 대표적인 研究成果로는 『農村生活綜典』과 『農業技術年刊 農業經營編·農家生活編 合本』 등이 있다.

#### 2) 제2기(1961~1975)

제2기는 1961년부터 1975년까지 高度經濟成長의 격변기에 해당하며 농업기본법의 制定으로 부터 시작된다. 이 시기에는 經濟成長에 따라 새로이 발생하는 構造問題를 解明하기 위한 現象分析 및 實態調査研究로 家族노동력의 再生産, 農家生活構造, 生活의 近代化 및 過疎化·集落再編成 등에 관한 研究가 중심이 되었다. 말하자면 이 시기는 農村·農家生活의 격동과 그것에 대응한 農家生活로부터 農村生活研究로의 확대라고 특징지을 수 있다. 이러한 것을 잘 나타낸 成果로는 『農村生活의 現代的 課題』이다.

#### 3) 제3기(1976~1984)

제3기는 1976년부터 1984년까지로 경제의 安定成長期에 해당한다. 前期에서 期待된 構造再編은 생각보다 늦어지고 농정에 있어서는 지역농정 및 畜利用再編이 登場하게 된다. 이 時期에 있어서의 生活研究課題는 農家生活의 變質과 村落機能을 把握하여 村落構造의 再編方向을 모색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성과로서 『農村社會에 있어서의 農林業生産 및 生活의 組織化方式의 確立에 관한 研究』가 있다.

#### 4) 제4기(1985~)

1985년 이후 부터는 제4기로 볼 수 있다. 이 시기의 주요 관심은 生活과 生産의 連繫에 집중되고, 그

것이 농촌의 존립에 關係되는 새로운 農家像·農村像이 摸索되는 時期이다.

### 2. 『農村生活研究』誌에 의한 구분

『農村生活研究』誌에 掲載된 발표물의 주제를 연대별로 분류해 보면 다음과 같다(표1 참조).

#### 1) 1950년대

『농촌생활연구』誌가 창간된 것이 1950년대 후반이므로 여기에 게재된 연구물을 중심으로 볼 때 1950년대 농촌생활연구는 量的으로나 質적으로 빈약한 시기였다. 이 시기에서 가장 중심이 된 연구분야는 食生活 및 營養研究分野였으며 그 다음으로 주요 관심분야가 된 것은 住宅改良과 農作業分野였다.

#### 2) 1960년대

1960년대에 가장 主流를 이룬 연구분야는 여전히 食생활 및 영양연구 분야였으며 주택개량 분야와 농작업 분야는 50년대보다 더욱더 관심이 높은 분야로 발전되었다. 1960년대에서 특기할만한 것은 衣生活 分野, 생활환경 및 위생분야, 生活時間 및 生活設計研究 分野가 새로이 주요 관심분야로 부각되었다는 점이다.

#### 3) 1970년대

1970년대에 들어서는 衣生活과 住宅改良 분야가 급격히 퇴조하고, 生活環境 및 衛生分野가 가장 주요한 관심분야로 떠올랐으며, 食생활 및 영양연구와 농작업연구 분야는 약간 퇴조하기는 하였으나 여전히 主要 관심분야의 하나로 자리하였으며, 이외에 새로이 地域計劃, 農村社會, 고령자 및 가족관계가 주요관심 분야로 떠오르게 되었다.

Table 1. 年代別 農村生活研究 主題 分析

	50年代	60年代	70年代	80年代	90年代	計
食生活 및 營養	8	25	19	25	5	82
衣生活	1	11	5	1	—	18
住宅改良	5	12	—	2	—	19
生活環境·衛生·健康	3	19	24	19	1	66
生活時間 및 生活設計	1	10	5	10	6	32
農作業 및 勞動	4	16	11	10	4	45
高齡者 및 家族關係	—	2	15	27	10	54
地域計劃	—	3	20	28	3	54
農村社會	—	3	16	18	6	43
生活文化 및 生活構造	—	1	3	15	9	28
其 他	9	71	71	66	16	233

\* 『農村生活研究』誌 掲載物 主題 分析(1957. 8~1992. 2)

## 4) 1980년대

또한 1980년대에 들어서는 지역계획, 高齡者 및 家族關係가 가장 주요한 관심분야로 되었으며, 식생활 및 영양분야와 生活環境 및 衛生分野, 농촌사회분야는 여전히 주요 關心分野에 속하였다. 이 시기에 특기할만한 것은 생활문화 및 生活構造에 관한 연구가 급격히 부각되었다는 점이다.

## 5) 1990년대

1990년대는 아직 分析하기에 충분한 研究物이 아니나 1990~1992. 2까지의 내용을 보면 고령자 및 가족관계와 生活文化 및 生活構造에 관한 연구가 가장 주요한 연구분야로 나타나고 있으며, 그밖에 農村社會分野와 가계비 및 생활설계에 관한 연구가 주요 연구분야로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연구의 主題別로 종합해 보면 식생활 및 영양연구 분야와 생활환경 및 위생분야, 生活時間 및 生活設計 分野, 농작업 분야는 持續的으로 주요 연구분야의 위치를 지키고 있으나 의생활 분야와 주택개량 분야는 급격히 퇴조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반면에 고령자 및 가족관계, 지역계획, 農村社會, 생활문화 및 생활구조 분야에 대한 연구는 더욱더 그 比重이 높아지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 IV. 今後的 課題

일본 농촌생활연구의 금후 과제는 첫째 : 분야별 기초연구의 축적과 종합화를 위한 이론화 및 체계화이다. 농촌생활연구는 가정학, 식품영양학, 의류학, 환경공학, 보건위생학, 생활환경, 사회학, 농업경제학 등 다양한 전문분야에 걸친 응용연구이다. 따라서 이들 專門분야별로 분화된 기초적인 연구업적은 통합되고, 종합화되어야 실용화의 가능성이 높는데 이러한 분야별 연구의 축적과 종합화를 위해서는 이론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둘째 : 효율적인 보급을 위한 연구성과의 실용화이다. 農村生活研究는 농가 및 농촌생활의 개선이라고 하는 實踐的인 目的을 가지기 때문에 現場을 지향하는 과제를 중심으로 연구되어야 한다. 아무리 좋은 연구결과라도 연구실에서의 연구성과를 현장에 그대로 적용하기는 곤란하다. 지도 普及現場에서 보다 실용적인 것이 되기 위해서는 연구결과의 基準化, 類型化, 모델化, 메뉴얼化(便覽化) 등의 操作을 통한 보다 구체적이며 직접적인 연구결과의 도출이 필요하다.